우석 스님 “화엄사를 열린 문화공간으로”

화엄사 주지 취임법회 봉행
우석 스님, 미래 비전 발표
“공심으로 포교 매진할 것”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신임 주지 우석 스님이 6월 7일 봉행된 취임법회에서 향후 운영 비전을 밝히고 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가 6월 7일 경내 화엄원에서 제23대 주지 우석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앞으로 화엄사가 나아갈 운영 방향과 포교 비전을 밝혔다.

이날 법회에는 화엄사 말사 스님들과 신도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우석 스님은 “화엄사를 시민과 불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문화공간이자 수행의 도량으로 만들겠다”며 향후 운영 방향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밝혔다.

우석 스님은 취임사에서 “원력과 공심으로 전법과 포교에 전념하겠다”며 “많은 이들이 화엄사에서 치유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고, 삶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발견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화엄사는 전임 덕문 스님을 중심으로 종교·문화적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확장해 새로운 사찰의 가능성을 열고자 한다”며 “문화유산 활용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 유산의 소중함을 알리고, 무형문화유산과 전통 장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보제루와 성보박물관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석 스님은 구체적으로 겨울철 ‘아웃도어 템플스테이’와 ‘문화유산의 날’ 운영 등 계절별 프로그램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을 ‘문화유산의 날’로 지정해 명사 초청 강연과 전시, 시범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의 역사성과 가치가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한 “섬진강변을 따라 걷는 명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걷기 명상’과 같은 페스티벌도 구상 중”이라며 “사찰의 정적인 이미지에 활동적이고 치유적인 프로그램을 더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량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문에 앞서 우석 스님은 화엄사의 운영을 함께할 국장단 14인을 새롭게 임명했다. 총무 우범·교무 우견·재무 법문·기획 우승·포교 덕명·호법 연성·사회 연우·복지 우태·연수 성각·홍보 범정·교육 선타·도감 덕제·산감 우곡·원주 불덕 스님 등이다.

이어 신도 조직 개편도 함께 이뤄졌다. 신임 신도회장에는 김수철 거사가 임명됐으며, 정재용 상임부회장과 문승옥·오인석·최호견·김완석·이현택·이철호 등이 부회장으로 함께 위촉됐다. 고문에는 이정곤, 감사에는 이은옥·이금숙, 수심회장 정상교, 불심회장 소재인, 청년회장 주형동, 선재거사림회 류창수, 포교사회 전은정, 만산회 양수영, 합창단 허현복, 선다회 이경진 등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우석 스님은 장길선 전 신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향일암 보문복지회에 후원금을 전했다. 또한 영응사(주지 우문 스님)가 화엄사에 승가복지기금 등 3000만원을 기탁하며 나눔의 뜻을 더했다.

우석 스님은 “화엄사의 전통성과 종교성을 지키면서도,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복합 문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불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숨 쉬고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엄사를 가꾸어 가겠다”고 밝혔다.

백양사, 을사년 하안거 결제법회

6월 10일 대웅전서 봉행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6월 10일 대웅전에서 ‘을사년 하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여름 안거 정진에 들어갔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수좌 일수 스님을 비롯해 주지 무공 스님, 고불선원·운문선원의 안거 대중과 소임자 스님, 신도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수행의 결의를 다졌다.

일수 스님은 법문을 통해 “수행하는 데는 그 마음을 진실히 써야 하며, 마음만 진실하면 도(道)는 친해지기 쉬운 법”이라며 “부처와 중생이 내 안에 있으니 다른 사람을 따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는 윤달로 인해 결제가 4개월 늦어져 더운 안거가 이어지는 만큼, 땀 흘리며 정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하안거에는 고불선원과 운문선원에 23명의 납자가 방부를 들였으며, 외호대중을 포함해 총 70여 명이 백양사에서 안거에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 용화사, 전통사찰 지정

울산 12번째 전통사찰



울산 용화사〈사진〉가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된다.

울산시는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한 용화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됨에 따라 시 전통사찰로 지정·등록한다고 6월 5일 밝혔다. 전통사찰은 역사성과 예술성, 전통문화를 계승한 사찰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곳을 정부가 지정해 보호·관리하는 제도다.

용화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하며, 조선 정조 1년인 1777년 통도사 재산 목록에 그 존재가 처음 기록됐다. 이후 여러 차례의 중창과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용화사의 지정·등록으로 울산시는 총 12개의 전통사찰을 보유하게 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선명상 강좌 개강… “수행 지도력 배양”

고창불교회관서 9일 첫 강의
마가 스님 6주간 명상 지도



선운사는 6월 9일 고창불교회관 3층 법당에서 ‘선 자비명상 특별강좌’ 첫 강의를 개최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본말사 스님들을 위한 선명상 특강을 개강했다.

선운사는 6월 9일 고창불교회관 3층 법당에서 제24교구 소속 스님들을 위한 ‘선 자비명상 특별강좌’ 첫 번째 강의를 개최했다.

교구 스님들의 명상 수행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수행 내실을 다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강좌는 35명의 스님들이 참가 신청을 했다. 선명상에 대한 관심을 가진 타교구 스님들도 동참해 이번 강좌에 대한 스님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급격한 농어촌 인구 감소와 불자들의 노령화로 사찰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스님들의 고충을 듣고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며 “현대사회 스님들에게는 개인 수행뿐 아니라 신도와 사회를 아우르는 수행 지도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번 강좌가 교구 스님들의 전법포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명상의 이해와 기본 강의에 이어 방송인 겸 가수 붓다라마 최진규 감독의 마음을 여는 시간에 이어 호흡명상, 알아차림 명상, 마음챙김 명상 등의 기초 실습이 이뤄졌다.

선운사 선명상 특별강좌는 동국대학교 정각원 교법사이자 자비명상 대표인 마가 스님이 맡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6주간 진행된다. 강좌는 이론 30%, 실습 70%의 비율로 구성됐으며, 자비명상을 중심으로 일상 속 수행의 적용 방안을 안내한다.

마가 스님은 “이번 특별강좌는 24교구 스님들의 명상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강좌는 단순한 명상 기법을 익히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살피고, 타인의 고통에 자비롭게 응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스님들이 이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자각과 자비의 호흡을 체험하시길 바라며, 그 울림이 도량과 신도, 나아가 이 사회로 따뜻하게 퍼져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응어리 풀기 명상과 치유 명상(6월 16일) △일상 속 명상 실습(6월 23일) △화소림 명상과 연기법(6월 30일) △맞춤형 명상과 마음 돌보기(7월 7일) △스토리텔링 및 유아 명상 지도(7월 14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BBS, 신사옥 이전 기념 연주회

5월 28일 중구문화의전당서



BBS울산불교방송(사장 이진용)이 5월 28일 울산 중구문화의전당 함월홀에서 신사옥 이전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사진〉

‘깨침의 소리, 울림의 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주회에는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혜원 스님을 비롯해 지역 사부대중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BBS울산불교방송 합창단은 찬불가와 대중가요 등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선보이며 관객들과 신사옥 이전의 뜻을 함께 나누는 감동의 무대를 꾸렸다. 또 소프라노 이은선과 BBS울산불교방송 무용단, 해조음 밴드가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며 무대를 한층 풍성하게 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삼론종, 2025 하계 수련회

6월 11~13일 보현정사서



삼론종(총무원장 남륜 스님)이 6월 11~13일 경북 경산 보현정사에서 2025년도 하계 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수련회는 종단의 수행 전통을 계승하고 종도 간 신행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총무원장 남륜 스님은 “이번 수련회가 삼론종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련회는 △총무원장·종정예하 간담회 △3차 교육 강의 △토론회 △야간 기도와 독송 △차담 및 공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안 금당사·신우그룹 업무협약 체결

템플스테이 통해 정신문화 확산 기대



진안 금당사(회주 원행 스님)는 6월 8일 경내 극락보전에서 신우그룹(대표 민인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템플스테이를 통한 불교문화 확산과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사진〉

이날 업무협약에는 금당사 회주 원행 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주지 보연 스님, 총무 보의 스님, 성보박물관장 법은 스님, 효복지관장 탄하 스님과 신우그룹의 민인자 대표, 이광철 회장, 그룹 관계자 등 1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업무협약 내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신문화유산의 확산을 목표로 △신우그룹 직원 금당사 템플스테이 참가비 30% 할인 △금당사 매장 내 신우그룹 제품 할인 적용 △상호 간의 홍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원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신우그룹의 이 회장, 민 대표께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러한 공덕으로 두 분은 물론 신우그룹 가족들이 악업을 소멸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항상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불자로서 돈을 버는 것보다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고 있다”며 “깨끗한 화장지처럼 모두가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나눔 실천도 함께 이뤄졌다. 민 대표와 이 회장은 진안 지역의 복지시설에 전달할 점보 롤 화장지 180상자(8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진안군청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국 축제 ‘송끄란’, 한국서 펼쳐지다

천안 붓다라마, 제2회 송끄란 축제 성료



태국의 설날 행사인 송끄란 축제가 한국에서 열렸다.

천안에 소재한 태국 사원 붓다라마(주지 찌라삭 스님)는 6월 8일 경내 일원에서 ‘제2회 송끄란 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주한 태국대사관(대사 타니 쌩랏)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태국 교민과 다문화가정, 한국 불자 및 지역 시민 등 2000여 명이 동참해 국적과 문화를 초월한 화합의 장을 펼쳤다.

‘송끄란’은 태국의 전통 설날이자 불력(佛曆)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큰 불교 행사로 매년 양력 4월 13일을 기준으로 부처님께 정화수를 올리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한 해의 복과 평화를 기원한다.

특히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들 또한 같은 날을 새해로 지정해 유사한 불교의 례와 물의 축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어 ‘송끄란’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선 남방불교계의 공동 무형유산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4월 날씨가 쌀쌀해 물축제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매년 6월로 일정을 조정해 봉행하고 있다.

붓다라마 주지 찌라삭 스님은 “송끄란은 단지 물을 뿌리는 행사가 아니라, 서로에게 복을 나누고 마음을 정화하는 불교의 수행”이라며 “오늘 축제를 통해 한국과 태국 불자들이 자비와 화합을 함께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모두가 평안과 행복을 이루길 기원한다”라고 축원했다.

이날 축제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가마에 부처님을 모시고 헌수 의식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장면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보명사, 군왕제·선지식 음악향연

6월 8일 경내 특별무대서



천안 보명사(주지 활암 스님)가 6월 8일 시민과 불자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기 2569년 군왕제 및 53선지식 음악향연’을 개최했다.〈사진〉

보명사 경내 특별무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군왕제와 2부 음악향연으로 진행됐다. 군왕제는 영산재 이수자 스님들이 의식을 집전했으며, 2부 음악향연은 가수 풍금·양지원·서동희·유난이·황아람, 악기연주자 심운, 묘광 스님의 무대가 펼쳐졌다.

주지 활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군왕제는 태조 왕건의 넋을 위로하고 70만 천안 시민과 불자들의 무병장수와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 깊은 행사”라며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통해 불자들이 위로와 지혜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